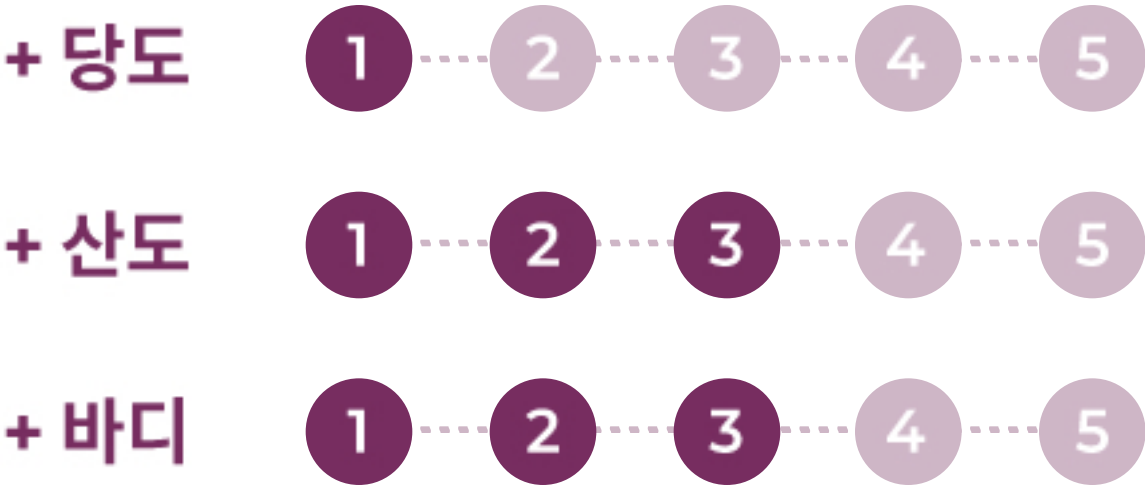




Undurraga TH The Vine

# 운두라가 TH 더 바인

떼루아에 얹힌 세가지 요소 중  
'포도나무'를 상징으로 만든 와인



## Point

- 최상의 떼루아를 찾아 나서는 '떼루아 헌터' 프로젝트
- 와이너리 수석 와인메이커 Rafael Urrejola, 2024년 IWSC 선정 Best Red Winemaker of the year
- IWSC에서 2년 연속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와이너리 운두라가

Type	화이트 와인
Country / Winery	칠레 > 레이다 밸리 / 운두라가
Grape Variety	소비뇽 블랑 100%
Capacity	750ml
Food Matching	신선한 제철 해산물, 스시, 샐러드, 치즈

## Information

떼루아에 얹힌 세 가지 요소인 사람, 땅, 포도나무 중 ‘포도나무(The Vine)’는 와인에 마법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늘한 기후의 레이다 밸리에서 재배, 엄선한 소비뇽 블랑으로 양조한 화이트 와인. 연둣빛이 감도는 연한 노랑빛을 띠고 있으며 시트러스 계열의 화사한 과일 아로마와 꽃, 후추의 노트를 섬세하게 즐길 수 있다. 침샘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산미와 균형감 있는 풍미, 긴 피니쉬로 마무리된다.

**Tip** | 마치 구대륙의 컨셉처럼 칠레 곳곳에 있는 최상의 떼루아를 찾아나서는 ‘테루아 헌터(Terroir Hun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와인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인 ‘사람, 땅, 포도나무’를 각각 상징으로 만든 시리즈다.